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 인 오¹⁾ · 이 경 완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세계를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진로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과 준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젊은이들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 바로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게 된다(김혜주, 2007).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과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중심의 진로결정과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체제의 미흡,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교육 부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신의 능력, 적성과 성격에 대한 자기이해와 탐색을 통하여 객관성 있는 인생설계를 세우고 다양한 진로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진로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졸업 후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거나 결국 이직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의료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생명의 연장과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보다 많은 간호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간호학과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수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지고 선택의 기회와 가능성도 더 증가하여 간호학

과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꼭 간호사로만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들은 이미 간호대학 졸업 후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 후에는 취업률이 다른 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막연히 진로를 선택하기 쉽다(김명아 등, 2004). 간호학과 교수 또한 진로지도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병원이나 산업체 및 기관의 설명회를 열거나 해당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도의 취업지도가 대부분인 실정이다(조희, 이규영, 2006). 이러한 간호대생들의 진로선택은 결국 취업 후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조직에 몰입하지 못할뿐더러 평생 동안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경력몰입 또한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내 3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간호사의 평균이직률이 15.8%(병원간호사회, 2009)로 다른 보건복지사업종사자의 이직률 2.16%(통계청, 2007)와 비교했을 때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도 이렇듯 준비되지 않은 진로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행동이란 진로결정 및 준비, 취업 및 취업 후의 적응 등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개인의 성격, 가치, 소질, 흥미 등의 내적인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탐색활동과 직업 등 외적인 환경과 관련된 환

주요어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1)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저자 E-mail: happymoon7777@hanmail.net)

2) 원광보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투고일: 2010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1일

경탐색활동을 말한다(Blustein, 1989; 최옥현, 2007). 이러한 진로탐색행동은 진로탐색효능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로탐색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진로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업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탐색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김혜주, 2007; 최동선, 2003). 또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공만족도도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일 것으로 유추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학진학 시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적 가치보다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합격이 가능한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전공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으며(장문영, 2005), 이러한 낮은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정도와 관련이 있다(장선철, 2003). 이렇듯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학과차원에서의 성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간호계에서도 간호대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간호대생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인식조사(방경숙 등, 2009)나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김명아 등, 2004),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최은희, 2009) 등을 조사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호대생의 진로탐색행동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구체적인 진로탐색활동정도를 알아보고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생들이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까지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진로지도에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취업 후 평생 자신의 직무에 만족함으로써 직무몰입과 경력몰입 등을 증가 시켜 이직율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

능감,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비교한다.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하혜숙, 1999)로서,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하혜숙(199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 및 진로 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기대감으로(Solberg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Solberg 등(1994)이 개발한 진로탐색효능감 척도(CSES; Career Search Efficacy Scale)를 최옥현(200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앞으로의 진로선택과 진로탐색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동선(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 1개교와 3년제 간호과 2개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56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료 수집을 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556부이었으며, 이중 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12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한 하혜숙(1999)의 전공만족도 척도 중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하고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5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5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혜주(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교과만족요인 = .75, 관계만족요인 = .73, 일반만족요인 = .86, 인식만족요인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교과만족요인 = .80, 관계만족요인 = .81, 일반만족요인 = .83, 인식만족요인 = .88 이었다.

●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효능감은 Solberg 등(1994)이 개발한 진로탐색효능감 척도(CSES)를 최옥현(2007)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로서,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Solberg 등(1994)의 진로탐색효능감 척도는 직업을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직업탐색효능감', 면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고용주에게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면접효능감',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는데 있어 기회를 구하고 지원하는데 주변의 정보나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관계구축효능감', 직업에 관해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선호하는바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인적 탐색효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총 35문항으로, Likert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최옥현(2007)이 위의 내용을 요인분석을 통해 '직업탐색효능감' 6문항, '면접효능감' 5문항, '관계구축효능감' 5문항, '개인적 탐색효능감' 4문항의 최종 4요인 2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한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최옥현(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직업탐색효능감 = .88, 면접효능감 = .83, 관계구축효능감 = .83, 개인적 탐색효능감 =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직업탐색효능감 = .87, 면접효능감 = .85, 관계구축효능감 = .83, 개인적 탐색효능감 = .86 이었다.

●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최동선(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총 28문항 중 현재 간호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3문항과 유사한 질문으로 판단된 1문항을 삭제한 후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탐색차원' 13문항, '환경탐색차원' 11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위한 탐색행동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자기탐색차원 = .85, 직업탐색차원 =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자기탐색차원 = .91, 환경탐색차원 = .88 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SPSS WIN/PC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3년제 대학 간호과 학생 404명(74.1%),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41명(25.9%)이었고 그중 학년은 3년제 대학 간호과 2학년 203명(37.2%), 3년제 간호과 3학년 201명(36.9%), 4년제 대학 간호학과 3학년 65명(11.9%), 4년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76명(13.9%)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45명(8.3%), 여성이 500명(91.7%)이었고, 종교는 무신론자가 205명

(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195명(35.8%), 가톨릭 53(9.7)의 순이었다. 입학 동기는 취업보장이 157명(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적 특성 151명(17.7%),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가 122명(22.4%), 소명감 또는 봉사정신 때문이 39명(7.2%), 성적에 맞추어서가 29명(5.3%)등의 순이었다. 간호학과 선택 시기는 원서접수기간이 203명(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3학년 시절 187명(34.3%), 고등학교 1-2학년시절 97명(17.8%)등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44)

Variables	Categories	n(%)
Education	College	403(74.1)
	University	141(25.9)
Grade	College 2nd	203(37.3)
	College 3rd	200(36.7)
	University 3rd	65(12.0)
	University 4th	76(14.0)
Sex	Female	499(91.7)
	Male	45(8.3)
Religion*	No religion	205(37.6)
	Christian	195(35.8)
	Catholic	53(9.7)
	Others	51(9.4)
	Buddhism	30(5.5)
Admiss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157(28.8)
	Professional trait	151(17.7)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122(22.4)
	Feeling of royal summons or service mind	39(7.2)
	Correspond to score	29(5.3)
Time for selecting nursing major*	Nurse's good image	4(7.0)
	Elementary school	26(4.8)
	Middle school	19(3.5)
	1st-2nd grade of High school	97(17.8)
	3rd grade of High school	187(34.3)
	Application period	203(37.2)

* Missing value excluded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총 평점은 5점 만점 중 3.61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교과만족 3.45점, 관계만족 3.04점, 일반만족 3.68점, 인식만족 4.26점으로 인식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계만족이 가장 낮았다. 진로탐색효능감의 총 평점은 3.37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직업탐색효능감, 3.36점, 면접효능감 3.30점, 관계구축효능감 3.41점, 개인적 탐색효능감 3.43점으로 개인적 탐색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면접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또한 진로탐색행동 총 평점은 2.39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자기탐색 2.62점, 환경탐색 2.18점으로 자기탐색행동이

환경탐색행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of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N=544)

Variable	Categories	Mean±SD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4.26±0.61
	General satisfaction	3.68±0.69
	Curriculum satisfaction	3.45±0.68
	Relationship satisfaction	3.04±0.84
	Total	3.61±0.53
Career search efficacy	Personal exploration efficacy	3.43±0.69
	Networking	3.41±0.72
	Job exploration	3.36±0.66
	Interviewing	3.30±0.67
	Total	3.37±0.60
Career search behavior	Self-exploration	2.62±0.76
	Environmental-exploration	2.18±0.76
	Total	2.39±0.7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학제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공만족도의 경우 4년제 학생들보다 3년제 학생들이 더 높았고($t=6.858$, $p<.001$),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3년제 학생들보다 4년제 학생들이 더 높았다($t=-4.545$, $p<.001$). 또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의 경우 4년제 4학년이 가장 낮았고, 3년제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의 경우 3년제 3학년이 4년제 3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F=22.442$, $p<.001$). 그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은 다른 세 그룹에 비해 4년제 4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9.431$,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았고($t=3.147$, $p=.002$), 진로탐색효능감의 경우에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t=3.642$, $p<.001$). 종교에 따른 차이는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로탐색효능감의 경우 불교보다 기독교인 경우가 더 높았고($F=2.588$, $p=.036$), 진로탐색행동의 경우는 종교가 없거나 기타 다른 종교인 경우 보다 기독교나 불교의 경우가 높았다($F=6.473$, $p<.001$). 입학동기는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공만족도의 경우 전문적 특성 때문이라고 답한 군이 취업보장, 성적, 가족 및 주위의 권유 때문이라고 답한 군보다 더 높았고($F=8.892$, $p<.001$), 진로탐색효능감의 경우 입학동기가 소명감

<Table 3> The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544)

Variables	Categories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Education	College	3.84±0.51	6.858(<.001)	3.38±0.61	.675(.500)	2.31±0.69	-4.545(<.001)
	University	3.50±0.51		3.34±0.55		2.61±0.69	
Grade	College 2nd ^a	3.74±0.46	22.442(<.001)	3.32±0.61	1.302(.273)	2.33±0.67	9.431(<.001)
	College 3rd ^b	3.93±0.54		3.43±0.61		2.29±0.70	
	University 3rd ^c	3.59±0.48		3.34±0.61		2.45±0.69	
	University 4th ^d	3.42±0.52		3.34±0.50		2.75±0.67	
Sex	Male	3.99±0.41	3.147(.002)	3.67±0.57	3.642(<.001)	2.37±0.82	-.196(.845)
	Female	3.72±0.54		3.34±0.59		2.39±0.69	
Religion	Christian ^a	3.81±0.50	1.098(.358)	3.47±0.61	2.588(.036)	2.52±0.68	6.473(<.001)
	Buddhism ^b	3.75±0.57		3.38±0.57		2.67±0.67	
	Catholic ^c	3.65±0.61		3.37±0.59		2.39±0.74	
	No religion ^d	3.73±0.51		3.28±0.58		2.28±0.70	
	Others ^e	3.73±0.62		3.31±0.63		2.10±0.64	
Admiss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a	3.63±0.51	8.892(<.001)	3.24±0.57	7.282(<.001)	2.24±0.68	5.423(<.001)
	Feeling of royal summons or service mind ^b	3.76±0.48		3.66±0.58		2.70±0.72	
	Correspond to score ^c	3.44±0.48		3.28±0.50		2.52±0.66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d	3.72±0.59		3.25±0.60		2.29±0.64	
	Professional trait ^e	3.95±0.46		3.53±0.57		2.52±0.72	
	Nurse's good image ^f	3.52±0.25		3.29±0.84		2.91±1.21	
Time for selecting nursing major	Elementary school ^a	3.80±0.52	4.026(.003)	3.76±0.59	1.591(.175)	2.25±0.71	1.511(.198)
	Middle school ^b	3.80±0.40		3.50±0.60		2.44±0.66	
	1st-2nd grade of high school ^c	3.91±0.46		3.50±0.61		2.52±0.66	
	3rd grade of High school ^d	3.74±0.49		3.33±0.57		2.38±0.70	
	Application period ^e	3.65±0.61		3.34±0.62		2.33±0.71	

또는 봉사정신 때문에, 전문적 특성 때문이라고 답한 군이 취업보장, 가족 및 주위의 권유 때문이라고 답한 군보다 높았으며($F=7.282, p<.001$)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입학동기가 소명감 또는 봉사정신, 전문적 특성 때문이라고 답한 군이 취업보장이라고 답한 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5.432, p<.001$). 선택 시기에 따른 차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1-2학년 때 선택하게 되었다고 답한 군이 원서접수 기간에 선택하게 되었다고 답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026, p=.00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진로탐색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66, p<.001$),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r=.567, p<.001$), 전공만족도($r=.564, p<.001$)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predictable variables of subjects (N=544)

	Career search behavior r(p)	Satisfaction in major r(p)
Satisfaction in major	.266 (<.001)	
Career search efficacy	.567 (<.001)	.564 (<.001)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탐색행동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30.744, p=.000$), R^2 이 .320으로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을 3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로탐색효능감($\beta=.611,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총 평점이 3.61점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search behavior

(N=544)

Variables	B	SE	β	t	p	R ²	F(p)
Constant	8.500	4.391		1.936	.053	.325	130.744 ($<.001$)
Satisfaction in major	-0.113	0.061	-.079	-1.844	.066		
Career search efficacy	0.862	0.060	.611	14.302	$<.001$		

이었고 이중 관계만족이 3.0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인식만족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미현과 신미아(2006)의 전문대 간호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공만족도 3.79점보다는 낮은 점수였으나 교수,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정도인 관계만족이 가장 낮고(3.14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좋게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인식만족(4.3점)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즉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간호학과 교수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법이나 진로지도, 생활 상담 등을 통해 학생과 보다 친밀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진로탐색효능감은 총 평점이 3.37점으로 이중 면접효능감이 3.30점으로 가장 낮았고 개인적 탐색효능감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대학생의 진로탐색효능감이 평균 3.33점으로 나타난 박은선(200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이나 개인적 능력에 관한 자기 탐색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와 같은 면접 시 탐색에 대해서는 효능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과 차원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시에 면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의면접과 같은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직접 자신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근무지에 모의로 자기소개서를 써보게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진로탐색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진로탐색행동은 총 평점이 2.39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자기탐색 2.62점, 환경탐색 2.18점으로 자기탐색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2.60점으로 나타난 박은선(2008)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점수로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탐색행동 중 간호대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으로는 주로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보거나 성공한 사람들과의 삶과 자신과 비교하는 등의 자기탐색차원이었으며, 대학 내의 학생 생활상담소나 취업정보센터, 전문상담가들을 찾아가 자신의 진로와 심리적 문제를 상담하거나 교수님과 미래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 상담하는 등의 탐색행동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간호대학생들이 주로 반성적인 자기탐색

과 가족 및 동료와의 대화를 통한 자기탐색활동은 많이 하면서 전문가와의 접촉 및 직업현장 방문을 통한 자기탐색, 매체나 전문적인 진로서비스를 통한 자기탐색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간호계의 현실을 간호대학생들도 알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진로탐색에 대한 의지가 다른 과 학생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들어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일단은 임상간호사로 병원에 취직하는 길을 택하고 몇 년의 임상경험을 쌓은 후에는 간호사로써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기를 원한다. 실제로 방경숙 등(2009)의 전국 6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졸업 직후 국내병원의 임상간호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졸업 후 5년 뒤에는 지역사회 간호사, 공무원, 보건교사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취업을 원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09년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직율의 이유 중 출산, 육아, 진학이나 유학 등의 이유(15.1%) 다음으로 타 직종으로의 전환(12.5%)이 차지한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바로 임상간호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일정기간 후에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는 간호대를 졸업할 무렵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학과차원에서의 진로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는 전공만족도의 경우 학제, 성별, 학과 선택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입학동기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된 정미현과 신미아(2006)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이었으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혜주(2007)의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던 것과도 상반된 결과였다. 또한 진로탐색효능감은 성별, 종교, 입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진로탐색행동은 학제, 학년, 종교, 입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입학동기와 학과선택시기 등의 차이가 전공만족도나 진로탐색효능

감, 진로탐색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주목하여 볼 때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시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졸업 후 취업실태, 간호사로써의 비전 제시 등과 같은 다양하고 세밀한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청소년시기의 진로교육은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될 미래의 간호학도들이 자신의 전공에 보다 더 만족하고 나아가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 졸업 후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일하게 될 때 평생 자신의 직업에 대해 애착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경력몰입과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여 몰입하게 되는 직무몰입이 증진되어 간호의 질이 향상될과 동시에 이직률 또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탐색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진로탐색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에는 진로탐색효능감이 3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탐색효능감이 강할수록 진로탐색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Solberg 등(1995), 최옥현(2007), 박은선(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이라는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고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이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지면 진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학과차원에서의 진로 교육 시에 간호학과 교수들의 인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사회 곳곳에는 과거에 비해 간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며, 창업에 대한 열기 또한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교수들은 과거의 단편적인 진로상담에서 벗어나 이러한 최근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직종으로의 진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진로에 대한 교육과 진로상담을 해야 한다. 진로상담 시에는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상담의 설계가 달라져야하므로(Fretz, 1981) 간호대학생의 성별, 학년, 종교, 입학동기 등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개인별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대학 내 전문 상담 교수 또는 상담요원과의 연계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법의 개

발과 학생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고해보아야 한다. 평생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진로탐색에 대한 의식을 간호대학생들에게 확산 시킴과 동시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가능성을 인식·탐색하고 개발시킴으로써 진로탐색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각 대학차원에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생활상담소나 학내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간호대학생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다양한 직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함과 동시에 여러 직종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거나 간호대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간호 분야에 대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과 정보의 활용, 구체적인 진로상담 활동 등을 통해 증진되어진 진로탐색에 대한 효능감은 학생 개인별 진로개발 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향한 구체적이고 활발한 진로탐색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정해진 확고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정도는 간호학과 졸업 후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와 직무몰입, 경력몰입 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총 평점 3.61 ± 0.53 점, 진로탐색효능감은 총 평점 3.37 ± 0.60 점, 진로탐색행동은 총 평점 2.39 ± 0.70 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전공만족도의 경우 학제, 학년, 성별, 입학동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탐색효능감은 성별과 입학동기, 진로탐색행동은 학년, 종교, 입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진로탐색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탐색효능감으로 진로탐색행동을 32.0%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을 포함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여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정은, 고유경 (2004).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3(4), 383-391.
- 김혜주 (2007).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 결정 효능감 및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은선 (2008). *아버지의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자 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방경숙, 전명희, 김현숙, 손행미, 강정희, 유수정, 권미경, 김지수 (2009). 간호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1), 22-31.
- 병원간호사회 (2009). 2009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간호사의 이직률과 이직사유현황.
- 장문영 (2005). *대학생의 학과 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장선철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화와 개인 인지변인과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정미현, 신민아 (200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170-177.
- 조희, 이규영 (2006).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 정체감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63-173.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최옥현 (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최은희 (2009).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1), 15-21.
- 통계청 (2007).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직종별 이직 인원 및 이직률. <http://www.kostat.go.kr/>
- 하혜숙 (1999). *대학생의 학과만족과 학교만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 Coll Stud Dev*, 30, 111-117.
- Fretz, B. R. (1981).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areer interventions. *J Couns Psychol*, 28, 77-90.
- Solberg, V. S., Good, G. E., Nord, D., Holm, C., Hohner, R., Zima, N., Hefferman, M., & Malen, A. (1994). Assessing career search self-efficacy expectation; Development of the career search efficacy scale. *J Career Assess*, 2(2), 111-123.
- Stumpf, S. A. &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J Vocat Behav*, 22, 191-226.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oon, Inn Oh¹⁾ · Lee, Gyoung Wan²⁾

1)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nursing students' career search behavior.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544 students by means of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bout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from March 2 to April 5, 2010. **Result:** The average score of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was 3.61, 3.37, and 2.39 respectivel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behavior, between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and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areer search behavior.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search effica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areer, Efficacy, Search behavio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on, Inn Oh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an 2-20, Geumam-dong, Deokjin-gu, Jeonju, Jeonbuk 561-18, Korea

Tel: 82-63-270-3104 C.P.: 82-11-674-6017 E-mail: happymoon7777@hanmail.net